"중소기업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산업 고도화로 기업가치 올려야"

서울연구원, 서울 350개 中企 설문
기업 89.7% DX기술도입 '긍정적'
우선도입 업무 84.3% '고객관리'

서울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4차 산업혁명기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정책리포트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이 중대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시 소재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9.7%가 DX 기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DX)은 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DX는 단순히 회사 내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38.9%는 '특정 업무에 한해 DX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응답했고, 37.4%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 분야는 고객관리(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가 84.3%로 1위를 차지했다. 시장 조사·분석(70.9%), 재무·회계·인사관리(51.7%), 판매·마케팅 혁신(37.4%), 생산 공정 효율화(19.1%), 연구 및 제품 개발(12.6%), 회사 내 자원 관리(11.4%), 공급망 관리(6.3%)가 그다음이었다.

DX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보 수집 역량 증대(32.8%), 회사 자원의 체계적 관리(29.7%), 신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기업가치 창출(29.1%)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업 내 디지털 전환의 인식 확산 및 실행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 여건을 감안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공급 주체인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속·고도화하기 위해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공공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촉진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돕는 산업 디지털 전환 펀드를 조성, DX 도입과 비즈니스 사업화, 스타트업 성장 지원 자금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림픽대로 상부 생태 덮개공원 최종 선정안 조감도. /서울시

올림픽대로 위 덮개공원, 생태공원 조성

1만㎡ 규모로 정원·오솔길 등 갖춰

2027년 완공 예정인 반포동 한강변 올림픽대로 상부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정원과 숲놀이터, 오솔길과 산책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덮개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공중정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1등작으로 이소진 건축가(건축사무소 리옹)와 신혜원 건축가(호주 모나쉬대학 교수), 조경회사 스튜디오 벌칸의 루카스 슈와인구루버의 공동 응모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소진 건축가는 윤동주문학관으로 지난 2014년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았고, 신혜원 건축가는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총감독을 맡은 경력이 있다.

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된다.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한 약 4만3362㎡ 크기로, 덮개공원(1만㎡)과 전시장(3300㎡) 등이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내년 대입 '무전공 유형1' 이과가 더 유리"

4년제 대학 합격선 비교
주요대학 73곳 '무전공' 30% 선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으로 주요 대학 73곳에서 10명에 3명꼴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서울권 자연계열은 2.15등급지만, 인문계열은 2.34등급에 그쳤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인문 3.00등급, 자연 2.64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높게 형성됐다.

앞선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수시 내신 합격선은 서울권 인문 2.45등급, 자연 2.22등급으로 자연계가 내신 합격선이 높았다. 경인권 대학도 인문계열 3.79등급, 자연계열 3.49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높고, 지방권도 인문계열 4.74등급, 자연계열 4.55등급으로 마찬가지였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어디가'에는 2024학년도 학교 내신 합격선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신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경우 ▲경희대 인문 1.77등급, 자연 1.64등급 ▲고려대 인문 1.50등급, 자연 1.43등급 ▲연세대 인문 1.69등급, 자연 1.56등급 ▲성균관대 인문 1.76등급, 자연 1.62등급 ▲한양대 인문 1.47등급, 자연 1.30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우세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6월 모평 직후 종로학원 입시예상 및 합격선 전망 설명회'에서 학부모가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무전공 선발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해 이뤄진다. 유형1은 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발유형이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로 입학한 뒤 해당 분야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이과가 구분된 셈이다. 202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무전공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해 신입생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과거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의 합격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문과·이과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성적상으로 현재 고득점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문과생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생과 문과생이 경쟁을 벌이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지원 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라며 "신입생 입학 결과에서도 유형1은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이과 합격생이 문과보다 수시에서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정시 선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유형1은 통합수능 중 특히 수학과목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아 정시에서 이과생 합격비율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도, 스페인 사우스 서밋과 업무협약

9월 25일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

오는 9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관련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손잡고 박람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간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우스 서밋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부터 3일간 광교(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등)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4'에 참석했다.

사우스 서밋은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13조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기업가치 약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다. 소프트뱅크, 구글 등이 투자자, 협력사로 함께하며 지난해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3'에는 3,500여개의 스타트업, 2,000여개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도는 사우스 서밋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준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3,000여개 스타트업과 투자자 1,000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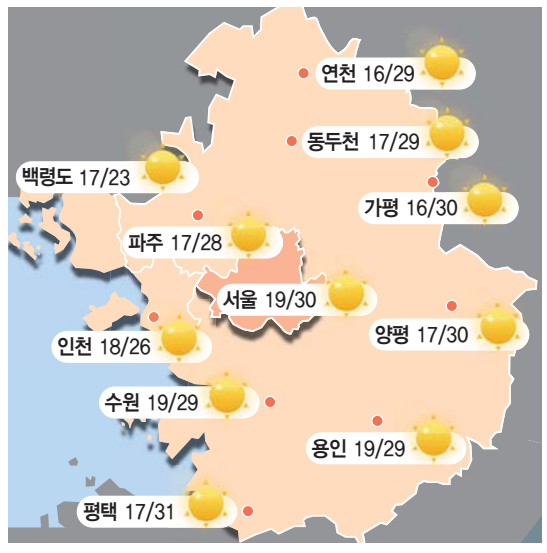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0 | 해짐 / 19:53

6월 10일 (月)
음력 : 5월 5일

수도권 날씨
19~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취임식 개최 /사진 뉴시스
▲IRA에 배터리업계, 美점유율 1위…"트럼프 당선시 투자위축 우려"

▲러 화물선, 4월 北 나진항 기항…무기·탄약 운반 가능성 무게
▲버진갤럭틱, 관광객 4명 태우고 7번째 상업용 우주비행 완료

▲덴마크 총리, 채찍 공격 받아…유럽 정치인 겨냥 공격↑ /사진 뉴시스
▲日 히타치, 2027년까지 5만명 AI 인재 육성…신규서비스 투입